

# 영암 F1

# 성공개척 이끈 사람들

## 적자 줄이고 불거리 늘리고... 지역경제 활력소로

### F1 조직위원회 이개호 사무총장

“올해 F1대회는 관람객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이끌고 있는 F1 조직위원회 이개호(54) 사무총장은 관람객들이 대회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재미를 느끼도록 각종 행사와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회부터 처음 진행되는 ‘우승자 알아맞히기’ 이벤트는 관중들에게 응원할 선수를 만들어줘 관중

의 재미를 증폭시키고 ‘한글 문자 생중계’ 등은 관중의 편의를 위한 노력이다. 또, MBC방송 ‘쇼!음악중심’, 에어쇼 등 각종 불거리도 마련됐다.

이 총장은 “F1 대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민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며 “올해는 관중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많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담양 출신으로 전남도 행정부지사 역할을 맡은 이 총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적자 해소를 위해 영국 F1매

지먼트(FOM)를 두차례나 방문하는 등 개최권료 인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F1대회가 지난 3년간 1700억원의 적자를 내며 지역민의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장의 행보가 조명을 받는 까닭이다.

그는 “도 지역 대회 운영, 주최측과의 개최권료 협상 등으로 과거에 비해 적자폭이 대폭 줄었다”며 “중앙정부의 관심 제고, 대회 운영비 절감 등 각종 대책수립으로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총장은 수치개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도 잊지 않았다. 이 총장은 “영암서킷 주변으로 자동차 튜닝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



자동차공업단지를 조성해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며 “F1 대회가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노벨상 시즌 개막... 문학상 후보에 고은·하루키

### 의학·물리·평화 등 총 6개 분야 고은 수상 가능성 배당률 11대 1

노벨상이 올해로 역대 112번째 ‘생일’을 맞았다. 스웨덴 함림원은 7일 오전 11시 30분(현지 시각)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과 9일 화학상을 발표한다. 평화상은 11일,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해온 경제학상은 마지막 날인 14일 발표 예정이다.

노벨상의 꽃이라 불리는 문학상의 발표일은 예전처럼 ‘미정’이다. 그간의 관례대로라면 목요일인 10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17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노벨상은 지난 1901년 이래 생리의학, 물리, 화학, 문학, 경제, 평화 부문 등 총 6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공로자들에게 매년 수여된다. 올해 노벨상 각 부문에 책정된 상금액은 스웨덴 통화로 800만 크로나로, 우리 돈으로 약 13억 4700만원이다. 공동 수상자가 나오면 상금은 반반으로 나누어 갖게 된다.

역대 수상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4대 795로 압도적으로 남성 숫자가 많다. 역대 최고령 수상자는 2007년 당시 90세의

나이로 경제학상을 받은, 러시아 태생의 미국 국적 경제학자인 레오니트 후르비치다. 반면 영국의 윌리엄 로런스 브래그는 1915년 물리학상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25세였다.

올해 평화상 후보로 떠오른 ‘파키스탄 피격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역대 최연소 후보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탈레반의 총격을 받았지만, 극적으로 생존한 16세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수상을 하면 역대 수상자 중 최연소에 해당한다.

한편 영국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래드브룩스는 우리나라 시인 고은의 수상 가능성 배당률을 11대 1로 잡았다. 고은 시인의 예상 순위는 문학상 유력 후보인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조이스 캐럴 오츠(미국), 페테르 나다스(헝가리)에 이어 네 번째다.

고은 시인의 고향 전북 군산에서는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일 은과 물빛다리 광장에서 노벨상 수상을 염원하는 풍물 한마당을 시작으로 8일에는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노벨상 수상 기념 선포식과 가수 조항조, 김용익 등이 출연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 친절서비스로

### 자원봉사 장장목·권승좌씨

“외국인들에게 남도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친절함을 보여줬습니다.”

F1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멀리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원했다. 장장목(72)씨와 권승좌(69)씨가 그 주인공.

자원봉사 12년 경력인 장씨와 9년 경력인 권씨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F1경기장을 찾은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무원 출신인 장씨와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권씨는 은퇴 후 각각 전국을 돌며 자원봉사를 하던 중 지난해 여수엑스포에서 만난 이래로 뜻을 모으고 같이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은 고마움을 봉사를 통해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권씨는 “교사 재직 시절 학생들에게 영어와 일본어 등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F1 성공개척을 위해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 달려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장장목(왼쪽)씨와 권승좌씨가 결승전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F1 대회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길안내 등의 봉사를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F1 대회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특유의 인장과 친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한국을 생각할 때 좋은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한국에서도 F1 드라이버 배출했으면

### 카툰작가 박지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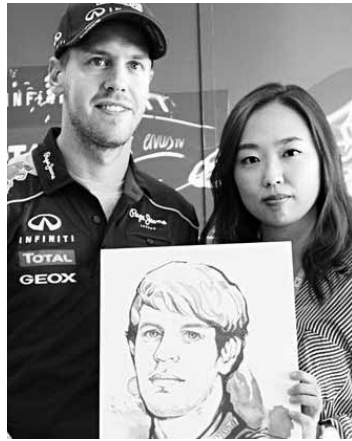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F1 드라이버가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F1 코리아 그랑프리 열리고 있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각 팀 차고지에는 올해 소속 선수들의 얼굴 사진 대신 그림을 걸었다. 웹툰작가 박지연(여·28)씨가 약 두 달을 고생해 완성한 작품이다.

CJ 레이싱팀 공식 블로그에 ‘슈퍼과속극장’이라는 레이싱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박씨는 F1 조직위원회로부터 ‘한번 선수 캐리커처를 그려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허락하며 좋은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직접 선수들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상만 보고 그린 그림을 실제 선수들이 보고 좋아했던 것이다.

박씨는 “지난 2일 제바스티안 페렐에게 직접 그림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며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까봐 조마조마했지만 환하게 웃어 주는 페렐 선수를 보고 안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2010년 코리아 그랑



카툰작가 박지연씨가 지난 2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제바스티안 페렐에게 직접 그린 초상화를 전달하고 있다. <F1조직위 제공>

프리 텔레비전 중계를 본 뒤로 F1의 열성적인 팬이 됐다.

그녀는 “현재 한국의 레이싱 환경은 열악해 F1드라이버를 배출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F1 경기장이 있는 만큼 언젠가는 한국인 드라이버를 배출해내면 F1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용희기자 kimyh@

## ‘승승장구’ 한국영화... 2년 연속 1억 관객 돌파

한국영화가 2년 연속 1억 관객을 돌파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영화 누적관객은 지난 4일을 기점으로 1억 관객을 돌파했다.

한 해 1억 관객을 동원한 건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평균 두 편씩 한국영화를 봤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47일이나 이른 1억 관객을 넘었다. 지난해 11월20일에 1억 관객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작년 수립된 한국영화 최고 흥행 기록(1억1461만3190명)도 올 연말에는 새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7번방의 선물’(1281만 명)과 900만 명을 넘은 ‘실국열차’(933만 명) 등이 한국영화의 흥행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9월까지 500만 명을 돌파한 영화로는 ‘도둑들’과 ‘광해’ 두 편만이 있었지만 올해는 ‘관상’(842만 명), ‘베를린’(716만 명) 등 모두 8편이 500만 명을 넘기며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연합뉴스



# 현장직 사원모집

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급여 : 1,800,000원
- 상여금 300%분할지급 (3개월 후부터)
-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 상여금 400%
- 근무시간 08:30~17:30 + 3시간 연장, 토요일 특근
- 여자사원은 35세 이하(경력자 40세미만 까지)
-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 주인등록등본 각1부
- 근무지 : 하남 7번도로, (주)금호전기

초보가능, 즉시근무, 장기근무가능, 작업환경좋음.

주식회사 엠지  
TEL. 062-681-5588 HP. 010-2580-3744  
FAX. 062-681-5586

\*버스운행 : 두암동 → 문충동 → 오치 → 일곡 → 양산동 → 첨단지구 → 신성지구 → 신가 → 운남지구 → 월곡동

# 동양의학수강생모집

## Self 건강관리를 위한 힐링강좌!

- 동양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 동양의학적 치료원리를 이해하여 자연치유력을 회복
  - 서양의학과 병원치료의 한계를 극복
  - 효과적인 국내외 선교 및 포교활동
  - 국내 의료개방 대비와 해외한인사 진출
  - 건강 및 대체의학 관련 사업의 소득증대

- \* **침구학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 · 뜸)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 **동양의학 전문과정(1년-3년)**  
주요과목 : 중의기초이론, 진단학, 본초학, 방약학, 경혈학 등

**공개강좌** 광주35기) 10월 11일(금) 14시  
위치 : 쌍촌역 2번출구에서 운전역방향 180m 중앙평생교육원내 2층

## 산동중의대 중의학 연수생 모집

### 3년 필업(졸업) 과정

- 교과내용 : 침구학, 침구치료학, 추나학, 해부생리학, 본초방제학, 사암오행, 동시기혈 등
- 중국자격증, 면허 취득가능, 중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진학가능
- 해외 한의대 편입 및 미국한의사시험응시가능
- 해외 한의사 진출(세계각국에서 한의원 취업 및 창업가능)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since 1985. 침구학 전문교육기관  
**CH아카데미**  
www.wch.ac.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 1.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만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로  
- 고혈압,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로 고혈압 약물,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  
-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미복용시 혈압(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이 130mmHg / 80mmHg 이상에서 180mmHg / 110mmHg 미만, LDL-콜레스테롤 100mg/dl 이상, 중성지방 400mg/dl 미만인 분  
- 또는 그 외 진료를 통해 기타 조건이 만족되시는 분
- 2. 참여에 따른 제공사항**  
- 혈액 및 뇨검사 / 신체검사 / 심전도 검사 / 24시간 혈압 검사  
- 임상시험용약품 제공  
- 진료비 및 검사비 제공 / 정규 방문시 소정의 교통비 지급
- 3. 참여 기간 및 방문횟수**  
선별검사로부터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총 14주이며, 이 기간 동안 총 7회 병원 방문 (경우에 따라 참여 기간 및 방문 횟수 변경됨).
- 4. 연구기관** : 국내 주요 종합병원
- 5. 연락처** : 본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시오.  
**상담원(콜센터) 연락처 : 070-4495-1096**